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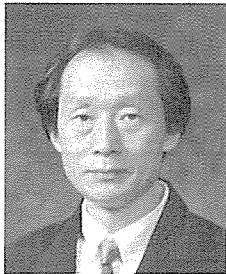
Ⅳ 우리건축의 전통계승

획

특

집

한국 현대건축문화 갈등 표출
전통적 세계관 계승 발전해야



金聖雨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기와집의 시작은 중국에서

건축에서의 전통계승은 건축인 모두의 관심사다. 우리가 '전통'을 문제삼을 때 '전통계승'으로서 문제삼는 것은 '전통이란 계승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선입관을 깔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전통이란 계승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선입관은 '지금 전통이 잘 계승되고 있지 않다'는 또 다른 선입관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통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하여 틀렸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당연한듯이 들리는 고정관념에 대하여도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전통은 계승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잘 계승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질문이 필요하다.

문제 자체를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문제 자체를 선명하게 하는 것은 대답을 구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문제를 선명히 하다보면 대답이 저절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문제를 선명히 하다보면 문제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 대답이 없는 질문을 붙잡고 있었거나 대답이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질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질문 자체가 떨어져버리는 경우이다. 어찌 보면 인생 자체가 대답없는 질문이기도 하다.

건축에서의 전통계승의 문제는 이러한 틀린 질문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대답을 찾지 못해 애쓰기 전에 또는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같이하여 질문 자체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종류의 문제이다.

'전통은 계승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잘 계승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은 다시 몇가지 생각을 전제로서 깔아 놓고 있다. 그 하나는 지금 우리의 현대 건축은 우리 것이 아닌 서양 것이다. 두번째는 우리에게서 한국적 고유성을 간직한 전통이 있다. 세번째는 서양식 현대건축이 아니고 우리의 전통에서 우러나온 한국적 현대건축이 있어야 한다. 이 세가지 생각은 마치 삼단논법과 같이 분명하고 당연한 논리적 귀결점에 도달된다. '전통은 계승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잘 계승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은 이러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세가지 생각은 옳은 얘기일 것이다. 그러나 그 옳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옳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도 들추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건축에 있어서의 전통계승 문제는 그 문제자체를 선명히 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한국 현대건축은 서양 것인가? 이 질문은 '모든 기와집은 중국 것인가' 하는질문과 비슷하다. 기와집은 중국에서 먼저 생겼다. 그렇다고 모든 기와집이 중국 것은 아니다. 현대건축은 서양에서 먼저 생겼다. 그러나 전 세계의 현대건축이 서양 것은 아니다. 기와집이 전통사회의 보편적 건축형식이었듯이 현대건축이 근대사회의 보편적 건축양식이다. 그것은 재료와 기술, 그리고 집을 짓는 주체와 목적이 다름으로 해서 생겨나는 건축적 현실의 다름이다.

한국의 현대건축이 서양 것이거나 서양의 아류 또는 지류로 보여져야 할 이유는 없다. 서양에서 먼저 시작된 근대

문명의 보편적 건축형식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면서 한국땅에도 실현된 것일 뿐이다. 서양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콤플렉스를 느낀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 현대건축은 서양 것이 아닌 한국 것이다. 거기에는 한국적 현실이 녹아들어가 있고 한국적 문제 해결방식이 적용되어 있으며 한국적 눈썰미와 손재주가 스며있지 않을 수 없다. 아무 이름 없이 이어지는 수많은 집들은 한국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한국 것이다. 대중의 삶의 현실이 한국적이지 않다면 다른 어디에서 한국적인 것을 찾아야 할까? 한국 현대건축을 한국 것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은 사실 고급 서양건축의 흐름에 의해 세뇌되어 있는 건축 전공자들의 제한된 안목이다. 고급 서양건축을 서양 것으로 규정하되 그것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서양 것이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근사한 한국적인 무엇을 꿈꾸게끔 되어 있는 자기부정적 사고 쳇바퀴이다. 한국 현대건축은 그것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서양 것이 아닌 한국 것이다.

동아시아권에 속한 한국건축

우리에게는 한국적 고유성을 간직한 전통이 있는가. 모든 전통논의는 계승되어야 할 한국만의 특수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러한 한국적 특수성 내지 고유성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적 고유성은 없다면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국적 고유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몇가지 감상적 언어구사를 넘어서 결론이 없었다는 사실과도 통한다.

지역적 고유성이란 것은 더 큰 범위

의 문화적 보편성 속에 귀속된 상태로 서만 가능하다. 한국건축의 특수성은 동아시아 건축의 보편성 속에 귀속되고 다시 동아시아 건축의 특수성은 세계적 보편성 속에 귀속된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문화의 보편성이 지역적 고유성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다. 고유성이란 것은 보편성에서 떨어져서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고유성이란 보편성의 지엽적인 나타남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국적 고유성이라고 꺼내놓은 것중에 많은 것이 동아시아적 보편성을 지적하고 있는 현실이 이러한 상황을 증명한다. 한국만의 고유성이 어디엔가 보물단지같이 있어서 그것만 찾으면 만사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은 하나의 착각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한 한국만의 건축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한국에서의 건축이지 순수하게 한국적 건축이란 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없다. 한국의 전통건축치고 중국건축의 한국화 과정선상에 있지 않은 집이 있을까. 그 건물들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동아시아적 보편 건축이고 어디까지가 한국건축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모든 지역적 특수성은 상호 영향관계 속에 용해되어 있는 것이고 공유되어 있는 정신성을 공통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 현대건축은 서양 것이냐 그리고 한국적 고유한 전통이 있다는 생각에 대해 반대적인 되새김을 하고 나면 세번째의 고유전통에서 나온 한국적 현대건축이 있어야 한다는 명제 역시 뿌리에서부터 흔들린다. 한국 현대건축은 이미 한국적인 것이고 전통에서 찾아져야 할 한국적 고유성이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적 현대건축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정이고 환상이고 꿈이다. 지금의 한국 현대건축이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영원히 한국 현대건축은 없을지 모른다.

근대문화가 서양에서 유입된 것이기에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보루는 전통문화뿐이라고 하는 간단한 공식으로 해서 전통을 살린 한국 현대건축을 만들자는 주장은 구호로 끝날 수 밖에 없을지 모른다. 우리 주변에 있는 기와지붕을 본판 현대건축이 바로 그러한 강박관념의 산물이다. 근대라는 술은 근본적으로 전통이란 부대에 담기질 않는다.

이러한 논의가 문자 그대로 “한국 현대건축은 서양 것이 아니며, 한국적 고유성이란 없고 그래서 전통에서 찾아지는 현대건축이란 것은 환상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러한 주장이 반증적인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또한 아니다. 전통계승 논의의 문제의식을 보다 더 선명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논지들이며 전통계승 논의는 이러한 반증적인 논지까지도 수용하는 범주에서 얘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 현대건축이 서양 것이냐라는 얘기는 서양건축 흐름의 주도적 역할이 미치는 영향이 아직 고급건축을 중심으로 강하게 남아 있다는 뜻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고유한 한국적 전통이 있다는 얘기는 동아시아 문화 전체적 보편성이 전통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는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견해수정을 거치고 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통을 계승한 한국건축이란 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우선 지금의 한국 현대건축의 모습을 서양만이 아닌 한국적 상황으로 이해하고 나면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는 다른 종류의 건축을 한국 것으로 규정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그리고 그러한 고정관념의 조절은 필요한 것이다. 또 한국전통의 어떤 고유 성격이 구현된 해답과 같은 작품이 따로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의 허구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설혹 그러한 대안이 제시된다고 한들 한국적 고유성이 한두 작품으로 대변된다고 보아질 수도 없다. 그렇다면 전통이 계승된 한국건축의 가능성이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다시 남는다.

여기에 대하여 두가지의 가능성을 윤곽만이라도 꺼내놓고 싶다. 그 하나는 지역주의의 가능성이다. 그것은 아마도 알바 알토와 같은 지역성의 이해에 의한 건축적 재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쉽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알토의 건축에서 보여지는 핀란드화한 근대는 분명한 지역주의를 실현시킨 예가 되기 때문이다. 혹시 다른 예를 또 들자면 루이 배러건이나 요른 오톤, 또는 일본의 현대건축가 한두명을 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예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혹시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전통계승된 한국건축인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어느 정도 그렇다라는 대답을 해야할지 모른다. 이러한 지역주의적 성취가 아니라면 또 다른 무엇을 구한다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모호하다. 사실 지역주의적 성취에 대한 기대도 쉬운 일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쉽게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그것을 증빙하지만 지역주의가 눈에 드러나는 모습보다 더 깊은 내면

성과 정신의 문제로서 걸려진 후의 나타남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주의가 실현됐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전통계승의 요구가 만족되는 것일까. 한국의 자연이나 문화성이 배태된 그러한 작품이나 건축가가 나타난다는 것으로 한국건축의 전통계승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서 좋을까.

여기에 대하여 두번째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지역주의와 같은 이름이 붙여질 수 없는 다소 다른 차원의 가능성이다. 그것은 전통을 지역이나 문화특성의 문제로 보기도 세계관의 문제로서 보자는 것이다. 전통문화는 분명히 근대문화와도 다르고 서구문화와도 다른 독특한 세계관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고 전통문화의 본래적 가치는 각양의 문화적 드러남보다 그러한 세계관의 가치에 있다. 전통건축의 가치는 그러한 세계관의 건축화로서 먼저 규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통계승의 게임은 전통건축의 외형적 나타남보다 그것을 그렇게 나타나게 한 세계관으로서 승부를 걸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근대문명은 근대문명대로 하나의 거대한 모순덩어리이며 자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주의에 대한 회의, 자본주의의 모순, 인간소외의 갈등과 같은 징후들을 굳이 예로 들지 않아도 이미 근대문명은 자기수정의 대안을 찾아 활로를 모색해온지 오래다. 그리고 근대건축은 근본적으로 근대문화의 모든 장단점과 운명을 같이한다. 근대적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진로수정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고 그 대안은 다시 세계관적 대안을 필요로 한다. 동아시아적 세계관이 그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제기는 이미 공론

화되어가고 있다. 세계관이 변하면 건축은 당연히 변한다. 전통계승이라는 게임의 초점을 여기에다 맞추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두번째의 가능성의 핵심이다.

건축은 분명히 세계관의 문제이다.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문화적 범위 내에서의 건축에서는 세계관 이외의 부분적 문제가 문제시 될 수 있겠으나 지금 우리 건축에서의 전통계승문제는 다르다. 우리의 현대건축과 전통건축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에 근거한 건축이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현대건축은 근대성의 모순적 요소와 동서양 문화전이 과정의 갈등과 자기성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근본적인 문제성이 치유되고 있지 않으며 그것은 또한 세계관적인 치유를 필요로 한다.

전통건축의 가치는 공간이나 형태 등의 문제로 논의되기 이전에 세계관의 문제로 따져져야 하고 사실 그렇지 않고서는 전통건축은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통계승의 문제도 세계관적 계승의 가능성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전통계승은 전통적 세계관이 어떻게 건축화되었는가를 이해하고 그러한 전통적 세계관이 지금의 상황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근대적 건축관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찾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근대적 상황에서 전통적 세계관의 미래를 다시 찾고 거기에서 다시 출발하는 작업인 것이다.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늘을 쥐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싸움터에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의 전통은 칼이지 바늘이 아니다. 우리의 전통계승은 세계관의 문제이지 형태의 문제가 아니다. ㉞